

건설 투자 증대는 ‘서민층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

- 고용 유발 효과 탁월, 소득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유효 -

단 하나의 건설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생산활동의 업무조정과 분담, 생산과정의 관리와 감독 등에서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력 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건설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건설 시공회사의 생산활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 자재 산업, 설계, 수송, 금융, 부동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력 또는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산업연관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연관표는 보통 1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 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경제구조 분석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국민 경제의 구조 변화 분석,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효과 측정, 각종 국가 사업의 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에도 유용되고 있다.

산업연관 분석은 경제 부문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산업간 순환 과정을 이용해 산업의 성장 파급 효과를 추정한다. 여기서 산업간 순환이란 생산 부문 상호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 분석이 소득 순환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 경제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지만, 산업연관 분석은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 구조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산업 부문 간의 기술적 상호

건설산업과 전체 산업의 생산·고용·취업 유발 효과

구분	생산 유발 효과		산업별 파급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명/십억원)		취업 유발 효과 (명/십억원)	
	건설	전산업 평균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	건설	평균	건설	평균
농림수산물	0.006	0.069	1.046	0.884	0.027	0.298	0.362	4.039
광산물	0.015	0.042	0.638	0.855	0.099	0.275	0.109	0.304
음식료품	0.007	0.072	1.082	1.133	0.023	0.253	0.032	0.344
섬유 및 가죽 제품	0.005	0.056	0.847	1.113	0.043	0.534	0.050	0.612
목재 및 종이 제품	0.029	0.081	1.228	1.047	0.156	0.445	0.180	0.512
인쇄, 출판 및 복제	0.006	0.048	0.723	1.201	0.071	0.524	0.085	0.633
석유 및 석탄 제품	0.037	0.081	1.217	0.612	0.013	0.027	0.013	0.028
화학 제품	0.070	0.125	1.882	1.089	0.244	0.437	0.255	0.456
비금속 광물 제품	0.110	0.055	0.823	1.089	0.646	0.319	0.701	0.346
제1차 금속 제품	0.143	0.117	1.757	1.180	0.267	0.218	0.279	0.227
금속 제품	0.086	0.056	0.838	1.158	0.763	0.496	0.915	0.595
일반 기계	0.044	0.058	0.882	1.152	0.293	0.386	0.320	0.421
전기 및 전자 기기	0.058	0.068	1.032	0.922	0.219	0.261	0.226	0.269
정밀 기기	0.003	0.041	0.624	1.083	0.026	0.350	0.029	0.378
수송 장비	0.005	0.058	0.882	1.271	0.021	0.239	0.021	0.24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0.006	0.040	0.607	1.071	0.060	0.418	0.078	0.537
전력, 가스 및 수도	0.025	0.072	1.084	0.807	0.057	0.164	0.057	0.164
건설	1.008	0.045	0.685	1.071	12.044	0.543	12.681	0.571
도소매	0.042	0.073	1.106	0.834	0.706	1.230	1.743	3.034
음식점 및 숙박	0.014	0.069	1.047	1.065	0.197	1.005	0.452	2.313
운수 및 보관	0.021	0.057	0.854	0.814	0.229	0.626	0.318	0.866
통신 및 방송	0.017	0.062	0.939	0.898	0.061	0.226	0.063	0.233
금융 및 보험	0.051	0.088	1.321	0.800	0.560	0.959	0.564	0.96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132	0.118	1.773	0.801	0.648	0.579	0.814	0.728
공공 행정 및 국방	0.000	0.036	0.538	0.820	0.000	0.553	0.000	0.553
교육 및 보건	0.017	0.053	0.792	0.841	0.332	1.006	0.371	1.12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4	0.043	0.647	1.010	0.064	0.660	0.132	1.360
기타	0.030	0.074	1.109	1.377	0.000	0.000	0.000	0.000
합계	1.990	1.858	-	-	17.871	13.029	20.847	21.854

자료: 한국은행(2003), 2000년 산업연관표.

의존성을 근거로 투자, 소비, 수출 등 최종 수요의 변화가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

면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천억원 건설 투자시 1,78명 고용 유발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 분석의 실제 예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2000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전체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와 건설산업을 포함한 28개 산업의 감응도 및 영향력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생산유발효과란 최종수요가 한 단위 늘어날 경우 생산량의 증가분을 말한다. 고용 및 취업 유발 효과 역시 최종수요 증가 대비 고용 및 취업자 수 증가분과 같다. 영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체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 대비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합계로 산정한다. 감응도계수는 영향력계수와는 반대로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이다. 이는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 대비 해당 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 행(row) 합계와 같다.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는 각각 후방 연쇄효과와 전방 연쇄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합계는 1.990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우보다 0.132 정도 크다. 즉 도로, 철도 등의 건설 사업에 1,00억원 정도의 정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은 1,99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 고용과 취업의 경우에도 1,00억원의 건설 투자로 인하여 1,78명의 고용과 2,08명의 취업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기회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 규모는 1,00억원 투자 대비 48.4명 또는 전 산업 평균치 대비 137.15% 수준이다. 더욱이 건설 고용 기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어질 수 있으므로 소득 계층 간의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설 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1.07이고 감응도 계수는 0.68라는 점에서 건설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평균이 상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건설 투자는 경기 부양의 중요한 정책 수단일 수 있다.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효과

한 지역의 건설 투자는 다른 지역의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특정 지역의 경제 성장이다.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는 2003년 국토연구원과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16개 지역 간 산업연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리된 16개 지역 간 생산 유발 효과이다.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가 증가한다면 각 지역 산업에 어느 정도의 생산과 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 경제를 대상으로 투자, 수출, 정부 재정

지출 등 최종수요 규모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생산 증가 규모 중 서울이 공급할 수 있는 비중은 68.53%이고 부산과 대구의 점유 비중은 각각 전체 생산액 중 1.66% 및 0.88% 정도이다.

특히, 표의 대각선 상에 있는 수치들은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자체 지역의 생산 유발 규모는 전국 대비 어느 정도 인지를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해당 지역의 자족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서울(68.53%), 전남(64.17%), 울산(58.15%), 경기(57.95%), 부산(56.91%) 등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46.84%), 광주(46.43%), 대전(45.44%), 충북(44.98%) 등은 지역 경제의 자족성이 비교적 낮다.

이제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해 서알아보자. 다음 쪽 표는 지역별 주요 3차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서울의 건설 투자가 전

16개 지역 간 생산 유발 효과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평균
서울	68.53	2.92	5.79	15.03	5.56	9.25	2.14	15.21	17.73	8.85	7.30	6.32	3.31	3.17	4.47	6.04	11.35
부산	1.66	56.91	6.68	2.96	4.86	3.88	8.83	2.67	2.35	3.76	4.27	5.20	7.05	8.46	9.21	5.94	8.42
대구	0.88	2.50	46.14	0.65	1.54	1.98	2.22	0.95	0.80	1.61	1.21	1.96	1.00	3.21	2.84	1.57	4.44
인천	3.85	0.60	1.17	48.66	1.04	2.27	0.55	5.80	3.73	2.89	2.94	1.58	0.84	0.78	0.86	0.83	4.90
광주	0.48	0.65	0.85	0.36	46.43	0.99	0.44	0.41	0.40	0.62	0.77	1.91	2.91	0.55	0.97	3.27	3.88
대전	1.18	0.93	1.74	1.38	1.62	45.44	0.89	1.60	1.20	3.14	3.67	2.75	1.39	1.10	1.21	1.24	4.40
울산	0.88	7.56	6.68	1.54	2.87	3.06	58.15	1.69	1.20	2.69	3.18	3.37	3.51	12.06	7.74	1.71	7.37
경기	13.22	2.18	4.53	18.03	3.90	8.88	1.85	57.95	13.59	12.90	11.57	5.82	2.63	2.98	3.07	3.04	10.38
강원	1.49	0.23	0.49	1.22	0.37	0.70	0.18	1.32	48.73	0.83	0.69	0.50	0.28	0.35	0.31	0.37	3.63
충북	1.40	0.79	1.66	1.66	1.25	3.72	0.70	2.38	2.04	44.98	4.07	2.25	0.92	1.14	1.09	0.92	4.43
충남	1.97	1.21	2.27	3.16	2.66	6.44	1.18	3.62	2.75	6.41	46.84	4.74	2.39	1.53	1.75	1.61	5.66
전북	1.01	1.39	2.19	1.09	3.99	3.51	1.11	1.40	1.20	2.69	3.71	47.00	3.11	1.45	2.14	2.44	4.96
전남	1.27	3.43	3.56	1.86	16.99	4.50	3.18	2.01	1.47	3.43	5.16	9.78	64.17	3.02	5.21	10.92	8.75
경북	1.09	8.12	8.58	1.09	2.20	2.48	11.75	1.44	1.51	2.65	2.14	2.66	1.83	53.19	7.97	1.80	6.91
경남	0.96	10.34	7.45	1.22	3.86	2.64	6.72	1.44	1.16	2.40	2.34	3.70	3.71	6.85	50.89	3.46	6.82
제주	0.13	0.23	0.24	0.08	0.87	0.25	0.11	0.12	0.13	0.17	0.16	0.46	0.96	0.16	0.27	54.84	3.7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국토연구원 및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산업별 · 지역별 생산 유발 효과

구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평균
서울	87.26	120.97	103.01	95.31	112.13	109.10	92.99
부산	89.56	124.70	105.34	99.11	114.98	111.51	96.67
대구	98.48	102.07	107.16	99.77	104.14	100.45	99.37
인천	105.76	112.30	126.72	108.06	101.94	96.79	106.61
광주	93.60	86.27	90.23	98.82	105.20	94.58	94.24
대전	92.43	92.95	87.59	98.35	102.61	100.57	96.49
울산	130.11	98.85	119.81	107.62	110.93	102.44	123.96
경기	102.31	108.09	101.06	101.31	93.82	95.92	101.05
강원	88.36	94.26	86.14	93.15	93.47	94.19	88.02
충북	100.22	99.69	98.95	100.55	96.32	101.03	97.73
충남	104.79	104.45	106.56	101.99	91.10	98.61	103.87
전북	93.75	94.38	93.35	94.73	95.80	98.46	95.04
전남	106.93	82.01	85.02	100.41	89.82	97.75	104.86
경북	110.41	96.13	94.84	103.60	93.66	98.87	104.33
경남	109.53	96.56	106.99	103.99	94.94	104.97	108.92
제주	86.50	86.32	87.23	93.22	99.11	94.79	85.85
평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전국평균 = 100.

국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87.26로 전국 평균보다 12.74% 포인트 낮다. 지역별 건설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비교적 큰 지역은 울산(전국 평균 대비 130.11%), 경북(110.41%), 경남(109.53%), 전남(106.93%), 인천(105.76%), 충북(104.79%), 경기(102.31%)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울산, 인천, 경남 등은 건설, 도소매 등 주요 3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저소득층에 소득 창출 기회 제공

이처럼 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설비투자와는 달리 건설 투자 대비 정부 재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건설 경기는 거시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건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중장기 성장목



건설 노동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설 투자의 증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추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지표가 사용될 수 있는데 국가 경제 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는 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잠재 산출량이란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 여건에서 노동,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산출물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2002)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980년대 7.8% 수준에서 1990년대 전반기 6.6%, 1990년대 후반기 6.0%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향후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 개방의 지속적 추진 여부에 따라 2003~07년 기간 중 4.8~5.4% 수준을 보이고, 2008~12년 기간 중 4.5~5.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설산업과 시장의 자료가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만족할 만 한 수준에 와 있지 않고 또한 기존의 이론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정을 설정한다면 중장기 건설산업의 바람직하고 달성 가능한 성장 추세를 제시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체질이 요소 투입 구조에서 생산성 구조로 변모할 것이고, 각종 사회 제도의 질과 대외 개방 정도 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산업도 연구 개발 및 인적 자본 등 질적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최근 BTL 사업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국 기업과 지역 연구 기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건설산업 집적체를 구성하고 건설 재료 및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여성 인력의 노동력 활용도 제고, 지식 기반 건설 서비스 산업과 고급 서비스의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 전수, 건설 인력의 재(취업) 교육 강화 등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건설 노동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육성은 국가 경제의 공헌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득 계층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